# 탄소예술작가와 '탄소예술' 장르 세계화 선도

## 전주문화재단, 프랑스 파리서 열리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전시회에 3인 작가 작품 전시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프랑스 파리 노르 빌팽트 전시장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복합소재 및 응용분야 전시회인 'JEC WORLD 2023'에 3인 작가의 작품 35점을 전시했다.

지난 2월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전주문화재단이 탄소소재 예술활동 지원이라는 공통의제를 가지고 협약 맺은 후 진행된 첫 국제행사다.

'JEC WORLD 2023'은 매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고 있으며, 전 세계 44개국 1,30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30여개의 국가관이 운영되는 등 세계 각국의 복합소재 기술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장이다.

양 기관은 JEC World 2023 전시기간 동안 대한민국 탄소예술 장르를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에 나서고 있다.

'JEC World 2023' 한국관 참여작가 모습

'JEC WORLD 2023' 한국관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획한 전시회로,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한 9개 제품을 비롯해 국내 중소기업 4개사의 제품 홍보와 탄소예술 작품 전시와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전주문화재단은 이번 행사에서 이례적으로 산업 박람회에서 '카본아트 라운지' 운영을 맡아 참여 하였으며, 탄소섬유를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창작한 탄소예술작품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 참여한 탄소예술작가 3인은 이강원, 이희춘(재윤), 장영애로, 카본아트 라운지에서 탄성과 강도, 경량 등의 특성을 연구하고 활용한 탄소예술 작품전시를 통해 '탄소예술'을 새로운 장르로의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데 일조했다.

본 전시로 전주문화재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탄소예술' 장르를 발굴하고, 산업용 탄소소재를 예술 분야로 넓히는 데 이바지했으며 탄소 소재를 활용한 예술작품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해 5월 개최된 세계 최대 복합재 전시회인 JEC World 2022에서 'Carbon Life Hall' 운영을 통해 가구에서부터 생활용품, 악기, 예술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탄소소재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전시함으로써 산업용 소재로만 여겨져 왔던 탄소소재의 활용가치를 홍보하고, 산업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전주문화재단 백옥선 대표이사는 "이번 국제전시 참가를 계기로 탄소 복합재를 예술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탄소예술 작품과 그 가능성이 전 세계에서도 주목 받은 계기기 마련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전주의 탄소예술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폭넓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마련하여 탄소예술이 또 다른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독립영화 감독과 즐기는 전주 도서관 여행

## 시, 전북독립영화제서 옹골진상 수상 김규민 감독 초청 진행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계절'을 맞아 독립영화 감독과 함께 전주지역의 특별한 도서관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시는 지난 28일 김규민 영화감독과 함께 전주의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고, 전주국제영화제 관련 전시를 함께 관람하는 '김규민 감독과 함께하는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도서관 여행은 시가 전주의 대표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채로운 문화를 즐기고 전주의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중인 '계절 코스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22년 전북독립영화제'에서 영화 '매일의 기도'로 옹골진상을 수상한 김규민 감독이 초청돼 도서관 여행자들을 안내했다.

이날 김규민 감독은 전주 도서관 여행의 여행지기가 돼 참여자들과 함께 △영화의 거리 인근에 위치한 '다가여행자도서관' △이팝나무가 만개한 팔복예술공장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 △추억의 가족영화, 명작 DVD 및 비디오테이프를 감상할 수 있는 '동문헌책도서관'을 둘러봤다.

도서관 여행자들은 팔복예술공장에서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의 포스터 페스티벌인 '100 Films 100 Posters' 전시를 관람하고, 마지막 도서관 여행 장소인 동문헌책도서관에서 '영화를 사랑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를 주제로 김규민 감독의 강연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다.

김규민 감독은 "각각의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도서관에서 전주 도서관 여행뿐만 아니라, 영화라는 미지로 향하는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 도서관 여행자는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뿐만 아니라 전주의 특별한 공간과 문화들을 만날 수는 시간이었다"면서 "전주 도서관 여행을 통해 전주의 아름다운 봄을 만나고 풍성한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고 참여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김병수 전주시 도서관본부장은 "전주국제영화제 기간 동안 책의 도시 전주를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전주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 여행을 통해 인문관광도시임을 널리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 '남원 전통과 퓨전의 소리 풍류에 빠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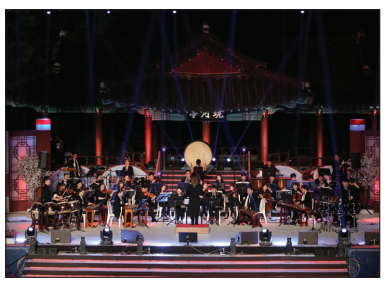
## 남원시,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 최종 선정

남원시가 남원 전통과 퓨전의 소리 풍류에 빠지다!를 주제로 남원의 고유 전통문화인 국악과 판소리, 남원농악 등 다양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계획을 제안하여 2024년 문화의 달 행사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자생력 확보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지역을 순회하며 문화의 날 기념식과 문화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는 8개의 지자체에서 신청 1개의 개최지를 선정했다.

국비 2억7천만원을 지원받아 2024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광한루 일원 특설무대와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기념식을 비롯한 창극공연, 전통국악과 현대퓨전국악의 콜라보 향연, 전국농악페스티벌 등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행사를 통해 전통문화도시 브랜드 강화와 도시의 대외 이미지 향상, 지역문화예술 및 관광컨벤션 관련 지역산업 진흥 등 여러 부수적 효과도 창출 것으로 예상된다.



남원시는 "대표 전통문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남원의 여정에서 2024 문화의 달 행사 유치는 매우 중요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주대 박물관, 기전중 학생 참여 '길 위의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 진행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에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전주대학교 박물관이 운영 중이다.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이상균)에서 진행하는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은 '슬기로운 의·식·주 생활'이라는 주제로 인간 생활의 중요한 의(衣)·식(食)·주(住)와 관련된 주제이다.

4월 27일과 28일, 양 일간 전주 기전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흙에서 그릇'이라는 주제로 고대 토기 복원 체험이 이루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박물관 및 학예연구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체험을 총괄한 박물관 박현수 실장은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 진행으로 학생들의 역사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겠다"며 교육 진행 취지를 밝혔다. /김재훈 기자

# "가정의 달 미술관 나들이 떠나요"

## 전북도립미술관, 5~7일 온 가족 즐길 수 있는 체험 · 공연 · 이벤트 등 진행

전북도립미술관(관장 이애선)은 가정의 달을 맞아 미술관은 찾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JMA Friends 2nd Event 'CHILD-RUN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전북도립미술관 2층 프렌즈 라운지와 야외정원에서 열리며, 선물 증정 이벤트, 공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먼저 5월 5일 어린이 날은 야외정원에서 아이들이 직접 꾸미는 뱃지 만들기 체험, 댄스팀 Up's의 K-POP 댄스 공연, 어쿠스틱 밴드 '레몬트리'의 버스킹 공연, 버블쇼 공연팀 '썬 Ent'의 버블 공연을 차례로 만나볼 수 있다.

5월 6일에는 해설이 있는 국악 공연 '소리를 그리다'를 진행하며, 전북도립국악원의 '위은영-꽃바람'을 야외정원 웰컴라운지에서 관람할 수 있다.

또 JMA Friends 기존회원이나 신규회원을 대상으로 도립미술관이 준비한 선물꾸러미를 증정하는 이벤트가 열린다. 5일에는 실기실에서 오후 1시부터 선착순 300명, 6일과 7일에는 2층 프렌즈 라운지에서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100명에게 증정한다.

특별 행사 이외에도 미술관에서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서완호, 차은우, 박세연 작가 3인의 '전북청년 2023'전과 교육과 전시, 체험이 결합되어 쉽고 즐겁게 현대미술을 직접 체험해보는 'Play×Fun=Happy'전도 함께 즐길 수 있다. 두 전시 모두 7월 16일까지 관람이 가능하다.

행사와 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누리집(jma.go.kr) 및 인스타그램(jeonbukmuseumofart)과 JMA FRIENDS 공식 누리소통망(jma_friends), 페이스북(jmamuseum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